존 오웬 『죄 죽이기』(박문재 옮김, CH북스 세계기독교고전 64)

8장 죄를 죽이기 위한 일반적인 지침들 (2)

『죄 죽이기』 제8장, 인쇄 109~115쪽

🧭 흐름 한눈에

오웬은 죄를 죽이는 두 번째 일반 원리를 내놓습니다. 모든 면에서 순종하려는 간절함과 부지런함이 없으면 어떤 죄 하나도 죽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는 먼저 이런 장면을 그립니다. 한 가지 욕망과는 필사적으로 싸우면서, 기도와 말씀과 다른 죄들은 내버려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싸움이 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두 가지 이유를 듭니다. 첫째, 그런 싸움은 죄 자체를 미워해서가 아니라 괴로워서 하는 것이므로 자기애(自己愛)에서 나옵니다. 둘째, 그 한 가지 욕망이 날뛰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전체적으로 소홀히 한 결과입니다. 욕망이 본래 그렇게 움직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 욕망을 징계의 도구로 쓰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결론은 분명합니다. 원인인 영혼의 전체 상태는 그대로 두고 결과인 그 욕망만 없앨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순종하는 데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 절별 정리

📜 1. 두 번째 일반 지침 — 전체적인 순종 없이는 어떤 죄도 죽일 수 없다

오웬은 이 원리에 두 단어를 씁니다. '간절함'은 사람의 마음가짐이고, '부지런함'은 실제로 하는 일입니다. 그가 그리는 사람은 이렇습니다. 한 가지 죄악된 욕망(정욕 lust, 하나님을 거슬러 무언가를 끈질기게 원하는 마음의 움직임)이 그를 사로잡아 평안을 빼앗습니다. 그는 견디지 못해 그 욕망과 싸우고, 기도하고, 신음하고, 탄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교제, 성경 읽기, 기도, 묵상 같은 다른 의무는 소홀히 합니다. 자기를 괴롭히지 않는 다른 욕망들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오웬은

그 모든 것을 거부하셨습니다. 한 가지 의무에만 몰두하고 다른 의무는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웬은 몸의 비유도 듭니다. 무절제한 식습관 때문에 종기가 났는데 습관은 그대로 두고 종기만 고치려 하면 헛수고입니다. 영혼도 마찬가지여서, 전체 영적 체질은 그대로 두고 흘러나오는 죄의 고름만 막으려 하면 실패합니다.

1. 한 죄를 죽이려면 모든 면의 순종이 필요하다
2. 간절함은 사람의 마음, 부지런함은 실제 일
3. 한 욕망만 붙잡고 다른 의무를 버리면 실패
4. 이스라엘의 금식도 편식된 열심이라 거부됨
5. 종기만 짜고 식습관은 그대로 두는 것과 같다

> **이사야 58:2**
> 겉으로는 날마다 하나님을 찾는 간절한 열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
>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 **이사야 58:5-7**
> 그 금식이 거부된 이유, 곧 다른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을 드러낸다
>
> 5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 같이 숙이고 굵은 베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열납될 날이라 하겠느냐 6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 주며 멍에의 줄을 끌러 주며 압제 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7 또 주린 자에게 네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네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 2. 첫째 이유 — 죄 자체가 아니라 괴로움을 미워하기 때문이다

오웬은 죄를 죽이는 참된 원리의 뿌리를 먼저 짚습니다. 죄가 나를 괴롭히니까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죄 그 자체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드러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것입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한 욕망과만 싸우는 노력은 자기애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웬은 독자에게 직접 묻습니다. “왜 그 욕망과 싸우는가? 그것이 당신의 평안을 빼앗고 두려움을 주기 때문 아닌가?” 그런데 당신이 내버려둔 다른 욕망들도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 욕망들을 위해서도 피 흘리셨습니다. 죄를 정말 그 자체로 미워한다면, 내 영혼을 불안하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을 근심하게 하는 모든 것을 경계할 것입니다. 오웬은 날카롭게 말합니다. 그 욕망이 날뛰어도 양심이 평안했다면 당신은 그것도 내버려두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오웬은 묻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위선적인 노력을 받아주실까? 하나님께도 괴로움인 욕망을 내 편하자고 없애 주셔서, 나는 다른 욕망들을 마음대로 채우게 하실까? 아닙니다. 자기 힘으로 벗어나려는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으니 혼자 싸우게 내버려두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순종에 있습니다. 괴로운 것에서만 벗어나려는 것은 '내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라고 말합니다. 모든 악을 경계하고 모든 의무를 행해서 마음 전체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받으시고 죄 죽이기도 열매를 맺습니다.

1. 참된 동기는 죄 자체를 미워하는 마음
2.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 뿌리다
3. 괴로워서만 싸우면 그것은 자기애다
4. 다른 죄들도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했다
5. 하나님의 일은 전체적인 순종이다

> **고린도후서 7:1**
>
> 일부가 아니라 '온갖' 더러운 것에서 깨끗해지라는 전체 순종의 명령
>
>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보편적이고 전체적인 순종에 있다.”

📜 3. 둘째 이유 ① — 경계를 놓으면 욕망이 길을 낸다 (욕망의 본성적 결과)

둘째 이유는 이것입니다. 한 욕망이 미친 듯이 날뛰는 것은 흔히 하나님과의 동행을 전체적으로 미지근하게 한 결과입니다. 오웬은 이를 두 가지로 설명하는데, 첫째는 욕망 자체의 성질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마음에 죄악된 욕망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을 내재하는 죄(indwelling sin, 거듭난 사람 안에도 여전히 남아 있는 죄의 성향)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 욕망이 교활하고 약삭빠르며,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고 싸우고 반역한다고 말합니다.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부지런히 지키는 동안에는 욕망이 시들어 갑니다. 그러나 경계를 늦추면 욕망은 특정한 출구를 찾아 감정과 생각을 장악하고, 결국 행동으로 터져 나옵니다. 한번 길이 나면 욕망은 그 '잘 닦인 길'로 계속 흘러나와 사람을 괴롭힙니다. 그때는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전체를 살폈다면 쉽게 막았을 욕망과 평생 씨름하게 됩니다.

1. 가장 좋은 성도 안에도 욕망은 남아 있다
2. 욕망은 교활하게 유혹하고 싸운다
3. 마음을 지키면 욕망은 시든다
4. 경계를 놓으면 욕망이 출구를 뚫는다
5. 한번 난 길은 반복되는 습관이 된다

> **잠언 4:23**
> (오웬이 장절을 밝히지는 않음)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무엇보다 지키라는 표현의 배경
>
>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야고보서 1:14

(암시) 욕심이 사람을 끌어 미혹한다는 성경의 묘사

>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베드로전서 2:11

(암시) 육체의 정욕이 영혼을 거슬러 싸운다는 묘사

>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로마서 7:23

(암시) 마음 속 다른 법이 싸워 사로잡는다는 묘사

>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 4. 둘째 이유 ② — 하나님이 그 욕망을 징계의 도구로 쓰신다

두 번째 설명은 하나님의 다루심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을 다루실 때 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다른 죄를 경고하십니다. 더 작은 죄로 고질적인 더 큰 죄를, 벗어나기 쉬운 죄로 단단히 붙잡고 있는 죄를 경고하시는 식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비슷하게 하십니다. 다른 악을 막거나 고치시려고 그들을 골치 아픈 죄악 속에 두시기도 합니다. 바울은 큰 계시를 받은 뒤 자만하지 않도록 '사탄의 사자'를 받았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하도록 내버려두신 것도 그의 허세를 고치시려는 것 아니었냐고 오웬은 묻습니다. (번역 본문에는 '바울의 허세'로 되어 있으나 문맥상 베드로의 허세입니다.) 그러니 한 욕망이 나를 지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고이자, 전체적으로 게을러진 동행에 대한 징계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원인인 부패한 상태는 두고 결과인 그 욕망만 없애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1. 하나님은 한 죄로 다른 죄를 경고하신다
2. 선도도 다른 악을 고치려 짐 속에 두신다

4. 베드로의 부인은 그의 허세를 꺾었다

5. 원인은 두고 결과만 없앨 수는 없다

고린도후서 12:7

하나님이 괴로운 것을 주셔서 더 큰 악(자만)을 막으신 실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26:33-35, 69-75

(오웬이 장절을 밝히지는 않음) 베드로의 장담과 부인, 곧 허세가 꺾인 사건

마태복음 26:33-35 33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34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35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마태복음 26:69-75 69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아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70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71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72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73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아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74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

📜 5. 결론 — 모든 면에서 동일하게 순종하라

마음을 써야 합니다. 어떤 욕망 하나를 내버려두는 것도, 어떤 의무 하나를 소홀히 하는 것도 하나님께는 괴로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속에 어떤 속임수가 있어서 전체 순종을 소홀히 하면, 영혼은 약해져서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지 못합니다. 영혼은 이기적이 됩니다. 죄의 더러움과 죄책(하나님 앞에서 죄인으로 서는 책임)을 뿌리부터 해결하기보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데만 매달립니다. 그러면 계속 하나님을 노엽게 하는 삶을 살게 되고, 어떤 영적 의무에서도 열매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죄 죽이기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죄 죽이기에는 전혀 다른 영혼의 상태와 원리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1. 괴로운 죄가 하나여도 순종은 전체로
2. 방치한 욕망 하나도 하나님께 괴로움
3. 속임수는 영혼을 약하고 이기적으로 만든다
4. 죄책보다 괴로움 해소에만 몰두하게 된다
5. 죄 죽이기에는 다른 영혼의 원리가 필요하다

> **고린도후서 7:1**
>
> 결론의 기준: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라는 전체 순종의 요구
>
>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 욕망이 당신을 불안하게 하지 않았다면, 당신도 그 욕망을 귀찮게 하지 않았을 것이다.”

⚖️ 오해와 반론

📖 용어

← C07 | PDF | C09 →

죄악된 욕망·정욕(lust)
하나님을 거슬러 무언가를 끈질기게 원하고 행동으로 몰아가는 마음의 움직임.

내재하는 죄(indwelling sin)
거듭난 성도 안에도 이 땅에 사는 동안 남아 있는 죄의 성향.

보편적·전체적 순종
골라서 하는 순종이 아니라, 모든 악을 경계하고 모든 의무를 행하려는 순종.

간절함과 부지런함
간절함은 마음의 진정성, 부지런함은 실제로 꾸준히 행하는 일.

자기애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편안함과 평안을 중심에 두는 마음.

죄책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고 정죄받을 처지.

징계
하나님이 자녀를 버리지 않고 바로잡으시려고 주시는 아픈 훈련.

하나님과 동행함
기도·말씀·묵상과 순종으로 하나님과 꾸준히 교제하며 사는 삶 전체.

- **점검 질문**

💬 **청년의 삶으로**

✅ **이 장의 결론**

- 어떤 죄 하나를 죽이려면 모든 면에서 순종하려는 간절함과 부지런함이 필요하다.

- 괴로워서만 싸우는 것은 자기애다. 죄 자체를 미워하고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것이 참된 동기다.
- 한 욕망이 날뛰는 것은 흔히 하나님과의 동행 전체가 느슨해진 결과다. 욕망이 그렇게 길을 내기도 하고, 하나님이 그것으로 징계하시기도 한다.
- 원인인 영혼의 상태는 두고 결과인 그 욕망만 없앨 수는 없다.
- 그러므로 나를 괴롭히는 죄가 하나여도, 모든 악을 경계하고 모든 의무를 행하며 하나님 앞에 전체로 낮아져야 한다.

🎬 이 장을 쓰는 편

- 죄 죽이기 7편 · 먼저 나무를 바꿔라 · 신자만 할 수 있고, 전체 순종 없이는 안 된다

빛다방 학습 노트 · 존 오웬 『죄 죽이기』(CH북스, 박문재 옮김)의 논증 구조를 우리 말로 정리한 것입니다(번역서 원문 미전재). 성경 장절은 개역개정입니다. 전문 텍스트판과 서재 정리본은 pdf.quritan.com 에 있습니다.